

#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글정보자원 관리\*

## A Case Study on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in the Central Asia

장 우 권(Woo Kwon Chang)\*\*

사공복희(Bok Hee Sak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정보자원 구성과 분포   |
| II.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 형성과정 | 2. 정보자원 생산기관과 매체 |
| 1. 고려인 이주에서 정착       | 3. 정보자원 관리기관     |
| 2. 고려인의 정체성과 우월성     | IV. 결론 및 제언      |
| III. 한글정보자원 관리       |                  |

### 초 록

제외한인의 한글정보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 보존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며 민족적 당위성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산재해 있는 한글정보자원과 정보자원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글정보자원은 고려인의 이주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려인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의 한글정보자원 발행과 관리 측면에서 매체별 구성과 현황, 정보자원관리와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자원관리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고려인사회, 한글정보자원, 정보자원관리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se the status quo of the HANGEUL publications, and management of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of the Central Asia. Documents analysis, and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s : setting up a goal of construction, defining and developing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produced and collected by the Korean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and analysing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and a conclusion and suggestion.

Key Words: Central Asia, Korean, Korean Society,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L2002).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wk1961@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bhsakong@chonnam.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5월 31일 • 최초심사일: 2006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22일

## I. 서론

재외한인의 한글정보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 보존하는 것은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대비는 물론,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며, 민족적 당위성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재외한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재외한인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안위 및 모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재외한인들의 정보자원과 정보정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거나 정보자원의 여러 측면중의 극히 일부분에만 국한되고 있어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재외한인 거주국 중에서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내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정보자원으로서 한글정보자원과 정보자원관리 현황 즉 정보자원 구성과 분포, 정보자원 생산기관과 매체, 정보자원 관리기관 등이다.

정보자원의 관리는 정보자원의 생산 및 수집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글정보자원의 생산은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함께 한다. 기록문헌에 의하면, 고려인의 강제이주 이전에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극동에서 한인학교, 사범대학, 신문, 방송, 잡지, 극장 등에서 정보자원을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원동(연해주 또는 극동이라고 함)에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강제이주는 정보자원의 생산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생활터전의 변화는 고려인들의 미래가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불굴의 한민족 정신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주 초창기에 이미 원동에서 옮겨온 한인학교와 사범학교, <선봉>이라는 신문, 고려극장, 한인방송 등이 있었다. 그리고 1938년 우리의 글과 말의 강제적인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 극장과 예술활동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명맥을 계승하여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신문, 방송, 예술활동이 카자흐스탄처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려인들의 삶과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오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의 한글정보자원 발행과 관리를 생산과 유통, 서비스 측면에서 논하고 매체별 구성과 정보자원관리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필자들은 문헌조사와 관련연구를 위해 2005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현지를 방문하였다. 연구조사행위는 직접조사, 정보자원 담당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생산하거나 수집해 놓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역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I.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 형성과정

중앙아시아에는 크고 작은 약 120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절대다수는 튀르크계 민족이며 다음으로 러시아인들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민족의 경우에는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카라칼파족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내에 자치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과 같이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독립 이전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이다.

### 1. 고려인 이주에서 정착

중앙아시아(독립국가연합) 고려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는 농업이민(1860-1905년), 망명이민(1905-1937년), 강제이주(1937-1938년), 소련붕괴체 이후시기(1991- )로 구분하여 나누기도 한다.<sup>1)</sup>

1860년대 중반 이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만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농사는 고려인에 의해 처음으로 이 지역에 도입되었다. 고려인의 근면성과 뛰어난 농업기술로 이룩한 경제적 성장에 기초하여 민족문화와 교육을 장려하고 군대를 양성하여 고국의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를 발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인 자치주건설운동으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적 움직임은 대 러시아주의를 주창하는 러시아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러시아의 변방지역을 비 러시아인들에게 맡기기보다는 러시아 또는 유럽계 이민자들로 대체하려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고려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분산되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단행된 강제이주로 인해 총 36,442가구 171,781명이 원동을 떠나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였다. 이 가운데 20,170가구 95,256명은 카자흐스탄으로 이송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으로는 16,272가구 76,525명이 강제 이송되었다.<sup>2)</sup> 현재 52만 명에 달하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대부분은 1937년 강제 이주된 이민 1세 2세의 후손들이다

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고려인은 다시 한번 수난을 겪었다. 강제이주의 치욕스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성국민 또는 일본군의 첩자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참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되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입대를 자원했고 그중에 소수는 선발되어 최전선으로 파병되었다. 참전하지 못한 대부분의 고려인은 “노동군(Work Army)”이라고 불리는 산업전선에서 봉사하였다. 특히

1)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43.

2) 반병률, “강제이주 이전의 한인사회의 동향: 1923-1937,” 러시아의 변화와 한러관계 한국술라브학회 제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11월 14-15일(서울: 경희대학교, 1997), p.10.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전쟁 기간에 생산량과 농지를 크게 확장하여 전식경제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고려인은 전장과 산업현장에서 충성심을 발휘하여 적성민족이라는 차별과 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sup>3)</sup>

외교통상부의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은 약 55만명<sup>4)</sup>이며, 이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약 22만명,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10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 2. 고려인의 정체성과 우월성

고려인의 가슴속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생동하고 있었다. 즉 강제이주 초기의 민족정체성은 고려인에게는 정신적인 자부심이며 미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소련의 소수민족언어 말살정책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삶의 고통에서 사라지고 독특한 고려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민족정체성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언어, 혈연, 문화적 요소 등 객관적 징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 징표 자체가 다양하고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프레드릭 바스(Frederick Bath)에 의하면, 정체성은 구성원 스스로가 타자와 대비하여 다르다는 타자의식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와 의미 부여이다.<sup>5)</sup>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스스로 자신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이라는 규정이다.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은 스스로 고려인이라고 존재규정을 한다는 면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내용과 기준을 통해 자신을 한민족으로 규정하는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은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사실, 즉 혈연에 큰 비중을 둔다. 이는 공통된 민족어를 상실하고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세대로부터 찾으려는 것으로 의식적,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이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그들에게 걸맞는 그들 고유의 합당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말을 모어로 하면서 국어인 우즈베크어 혹은 카자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의 모습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고려인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특징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높은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고려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고려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 평균보다 2배가 넘는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교육열이 높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고려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다르지만 농업에서 정치가,

3) 조화성, “중국과 구 소련의 소수민족정책과 재외한인의 민족정체성.”  
([http://www.korea.ac.kr/~politics/magazine/working\\_paper/natident.hwp](http://www.korea.ac.kr/~politics/magazine/working_paper/natident.hwp)).

4) 2001년 통계에서는 521,694명

5) 조정남,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최근성의, 현대사회와 가치(서울: 두레시대, 1996), p.315.

6) 조화성. Ibid.

학자, 교사, 의사, 경제인, 기사, 법률가, 문화인,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하다. 고려인은 이주 당시 대부분이 집단농장에서 농사를 주된 업으로 삼았으나 차차 살림에 여유가 생기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자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사를 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56년에 70% 이상이 농촌 인구였으나 1970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59.9%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어서 1999년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 고려인 인구의 86%에 달한다. 이러한 도시화와 교육수준 향상의 당연한 귀결로 고려인의 직업도 전문직, 사무직이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독립 이후 고려인은 양파, 사과, 참외, 수박 등의 야채와 과일을 특화 재배하기 위해 볼로그라드,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카프카즈, 시베리아, 우랄 등지로 소위 ‘고본질’이라 불리는 계절임차농을 다니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다. 고본질은 타민족과는 구별되게 고려인만이 실행하는 농업형태이다. 구소련 체제에서 고본질과 같은 투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불법이었지만 고려인은 이를 통해 높은 수입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려인이 타민족에 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sup>7)</sup>

### Ⅲ. 한글정보자원 관리

#### 1. 정보자원 구성과 분포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구소련이라는 하나의 국가 아래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 탄생으로 고려인들이 민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무형의 문화와 자원들이 분산되어 흩어지고 상호 왕래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자원들이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의 여러 도서관이나 보존소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련 시기에 고려인들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는 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 극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정보자원이다. 둘째, 초기 이주 시기의 자료이다. 이는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강제이주와 관련된 정보자원이다. 셋째, 강제이주 이후 현재까지의 자료이다. 이것은 고려인들이 현지에 정착하면서 생산해낸 문헌정보자원이다. 넷째, 개인가문과 관련된 문헌정보자원이다. 이는 초기 이주시에 극동에서 고려인들이 생활도구와 같이 가져온 족보와 같은 개인이 소장한 가문에 관련된 기록문서와 조선말 19세기(주로 1800년대) 때의 고문서들이다. 다섯째, 해방

7)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콜로키움(2003년 5월 23일)과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2003년 6월 28~29일)에서의 발표된 글.

이후 북한에서 가져왔거나 보내온 도서들이다. 이는 주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첫째, 둘째, 넷째의 문헌정보자원은 고려인의 과거역사에 대한 기록들이라면, 셋째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착 후 생산해낸 문헌정보자원으로 생생한 고려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기록사이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한글정보자원 또는 고려인과 관련된 정보자원은 텍스트와 기사 위주의 생산은 자수식(Zhazushy)와 산삼(SANSAM)을 비롯한 다수의 출판사와 고려일보, 고려신문, 실크로드, 한일일보, 교민일보 등의 신문사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음향과 영상매체는 한인 라디오방송, 한인 텔레비전방송, 우즈베키스탄 제1국영방송 채널4(고려인 프로그램 '친선') 등 방송국에서,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은 고려극장, 송시네마, 우즈베크필름, 우즈베크텔레필름, 샘물바이얼린단, 청춘가무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나 한국 관련 자료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 관리기관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국정원기록보존소, 타쉬켄트기록보존소,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기록보존소, 카자흐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알마타·잠불·카라간지역기록보존소, 사진필름기록보존소 등이 있다

## 2. 정보자원 생산기관과 매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한글 정보자원의 생산은 크게 출판사, 신문사, 방송국, 문화예술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보자원 유통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시대에는 유일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도서관유통기관이 도서관매매와 더불어 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였다. 독립국가 이후에는 정부의 출판·유통에 대한 법률체계가 미흡하여 러시아의 도서관매매업체가 이를 대행하거나 출판사에서 유통을 겸하고 있어 아직 출판도서관과 유통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노력으로 순수 우리말을 바탕으로 한 한글정보자원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었다.

다음은 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매체별로 나타낸 것이다.

### 가. 출판사와 정보자원

카자흐스탄에서 한글로 된 출판물은 대부분 '자수식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자수식출판사는 1934년에 창립되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이며 제일 큰 출판사이다. 예술(성) 작품을 주로 출판하는데, 카자흐스탄 민속, 전통과 고전문화, 문학작품 등을 발행하였다. 여러 언어, 즉 러시아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독일어, 한국어로 발행하였다. 2003년에는 110종의 도서를 발행하였는데, 30만 4천권의 책을 유통시켰다<sup>8)</sup>

초기설립자는 사킨즈플링으로 작가인 그는 1937년 정치적인 박해 속에 세상을 떠났다. 현재 대

8) 자수식 출판사에 관련된 manuscript 2003.

표 라고사노프는 1995년부터 재직중인데 시인이다.

“저는 어린시절 고려인 집거지 촌(벼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고려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고려인과 어울려서 개고기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개고기를 먹어본 최초의 카자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현재 ‘올인’ 방송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sup>9)</sup>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매우 친한(親韓)적 인물이다.

현재 이 출판사에서 한국어 도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글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으며 출판에 있어서 판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출판사에서 현재까지 순수 한글로 마지막 발행된 도서는 김광현의 작품 『썩(1986)』이다. 그 이후 작가들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쓰고 발행하고 있다. 작가 한진은 주로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인(한인)이주(1996)』를 러시아어와 한글 합철로 발행하였다.

‘자수식출판사 외에 ‘카자흐 국영문에서적출판사’, ‘알마아따 출판사’, ‘알마아따 작가출판사’, 고려인이 운영하는 ‘산삼출판사’가 있다. 이들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글문학작품 도서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출판사별로 보면, 자수식출판사가 11권으로 가장 많이 발행했으며, 카자흐국영문에서적출판사 1권, 알마아따출판사 1권, 알마아따 작가출판사 1권, 알마아따 오네트출판사 1권, 기타가 4권으로 총 20권이다. 내용으로 보면, 시집이 10권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작품집이 6권, 소설 3권, 희곡 1권이다. 개인저작은 14권이고, 저자가 2명 이상인 다수 저자의 저작은 6권이다. 이외에 모스크바에서 3종, 사할린에서 1종의 한글작품이 발행되었다(<표 3> 참조).<sup>10)</sup> 모스크바와 사할린에서의 한글 정보자원은 추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필자들의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것 즉 출판사, 신문사, 방송사, 도서관, 문서관의 관련자들의 인터뷰와 목록조사를 통해 1937년 이전 정보자원은 거의 대부분 모스크바로 이관되어 보관 중이며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이후에도 대부분 모스크바에서 생산되고 유통시킨 정보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음을 조사결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순수한글로 된 도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순수 한글작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으로 와서 발행하였다.

## 나. 신문사와 정보자원

### (1) 카자흐스탄

강제이주 이전 원동지역에서는 1932년경 7종의 신문이 발행되었다. 7종의 신문은 「선봉」, 「문화」, 「새 세계」, 「노동자」, 「로동신문」, 「적선」, 「동아공산신문」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문은

9) 2005년 2월 25일(월) 16:25-50 사장 집무실에서 인터뷰.

10) (표1), (표2), (표3)의 데이터는 현지에서 도서관 출판사 관계기관 저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고 인터뷰하여 입수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표 1〉 카자흐스탄 출판사별로 발행된 한글문학도서 종수

	출판사	발행 종수	내용				저자수		비고
			시	소설	희곡	종합	개인	다수	
1	자수시(자수식)출판사	11	4	2	1	4	6	5	
2	카자흐국영문에서적출판사	1	1				1		
3	알마아따출판사	1		1			1		
4	알마아따 작가출판사	1				1		1	
5	알마아따 오네트출판사	2	1			1	2		
6	기타	4	4				4		시집2, 동시집, 가요집
	계	20	10	3	1	6	14	6	

〈표 2〉 카자흐스탄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글문학도서의 목록

	도서명(발행연도)	작품성격	저자(편저자)	발행지역	출판사
1	씨르다리아의 곡조(1975)	종합작품집		알마아따	자수시출판사 (자수식)
2	그대와 말하노라(1977)	시집	김준		
3	해바라기(1982)	종합작품집	강태수 외 20명		
4	숨(1985)	시집	김준		
5	쌈(1986)	종합작품집	김광현		
6	붉은 별들이 보이던 때(1987)	소설집	김기철		
7	한진희곡집(1988)	희곡집	한진		
8	행복의 고향(1988)	단편소설	김광현, 이정희		
9	꽃피는 땅(1988)	종합시집	조명희 외 19명		
10	해돋이(1989)	시집	리진		
11	오늘의 벗(1990)	종합작품집	한진 외 3명		
12	조선시집(1958)	시집	박일(편)	크솔오르다, 알마아따	카자흐국영문에서적 출판사
13	십오만원사건(1964)	장편소설	김준	알마아따	알마아따출판사
14	시월의 해빛(1971)	종합작품집	조명희 외 24명		알마아따 작가출판사
15	연성룡 작품집(1981)	작품집	연성룡	알마아따	알마아따 오네트출판사
16	행복의 노래(1983)	시집			
17	길에서(1981)(원저 줄피스)	시집	강태수 역		
18	저녁풀피리(1981) (원저 스베플라나 꾸즈네쵸바)	시집	김준 역		
19	신기로운 성의 주인	동시집	박보리쓰		
20	절경이	가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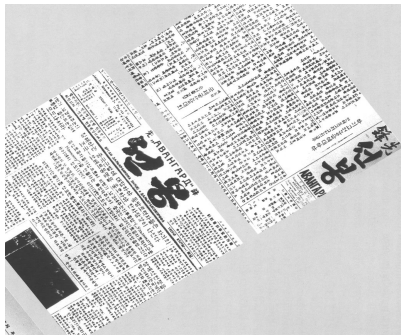
〈표 3〉 모스크바와 사할린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글문학도서

	도서명(발행연도)	작품성격	저자(편저자)	발행지역	출판사
1	선집(1959)	종합작품집	조명희	모스크바	쏘련과학원동방도서출판사
2	삼형제(1961)	중편소설	장유기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서적출판사
3	고향(상·하)(1966)	장편소설	리기영(북한작가)	모스크바	포르그레쓰 출판사
4	두만강	다부작	리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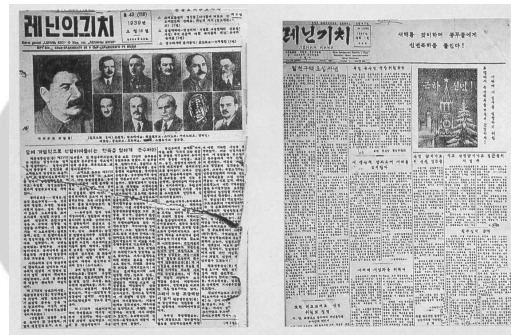


「선봉(先鋒, 아반가르드 (Авангард), Senbon)」이었다. 이 신문은 극동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 신문이다. 1923년 3월 1일 '3·1독립만세운동' 제4주년을 기념하여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초대주필은 이성), 1932년도에는 1만부의 부수를 가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선봉」은 강제이주 바로 전인 1937년 9월까지 발행되었다. 당시 이 신문은 한인 이민의 생활, 관습, 전통, 역사에 관한 정보를 기사화했으며, 전체 극동의 산업, 문화, 사회생활에서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새소식에 관한 정보를 다루었다.

「선봉」신문은 1937년 11월 7일 발행지를 원동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옮겼다.<sup>11)</sup> 1938년 5월 15일부터 「레닌의 기치」란 이름으로 개칭되어 1개월에 15회, 6천부의 부수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제1대 주필 서재욱).<sup>12)</sup> 1961년에 「레닌기치」는 공화국 신문이 되었으며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까지 보급되었는데, 당시에 신문사 직원은 6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신문은 1978년 발행지가 크즐오르다에서 알마아타로 옮겨졌다.(그림 1)<sup>13)</sup> 과 (그림 2)<sup>14)</sup> 참조.



〈그림 1〉 「선봉」의 표지와 내용기사



〈그림 2〉 「레닌의 기치」와 「레닌기치」의 표지와 내용기사

「레닌기치(Ленин Киуи)」는 한인 이주민의 사회정치적 생활과 계몽, 문화발전, 문학, 언어문제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이 신문은 소련에 거주하는 모든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발간된 신문이지만, 기자들이 카자흐스탄 옛 수도인 크즐오르다에 거주한 고려인들이었으므로 「레닌기치」는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발행된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기치」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인 작가의 소설, 시, 단편소설과 한인 학자들의 한인 강제이주에 관한 글들이 실렸다.

1991년에 「레닌기치」는 「고려일보」로 개칭되었다.(그림 3) 우리말을 아는 고려인들이 점점 줄

- 11) 최호림 주필을 비롯한 전체 편집진이 탄압의 대상자였으며 황동훈 신문 농업부장이 탄압을 피해 신문재발간의 기초를 닦았으나, 그 후에 탄압대상자가 되었다.
- 12) 규격이 작음에다 2면밖에 안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신문사의 요청으로 1940년 「레닌기치」는 크즐오르다주 주신문의 지위를 얻었다.
- 13)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1997), p.226.; 고려일보 민족성을 지켜온 신문, 고려일보-80주년(알마아타, 2003).
- 14)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1997), p.227.

어려자 부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해에 러시아로 된 주간지 「고려」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주간지는 러시아어권 동포 작가 및 기자들이 만들었다. 우리말을 모르는 독자들은 러시아 주간지를 통해 처음으로 재소 고려인 역사의 ‘백서’를 알게 되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고려일보」는 독자들이 많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외 지역의 독자와 연결이 끊어졌다. 그 후 재정난으로 「고려일보」는 1992년부터 발행회수가 1주일에 5회, 2회, 1회 등으로 줄어들다가 2000년에 운영권이 5년간 고려인협회로 위임되었다. 한때는 발행부수가 2만부까지(1980년대 초) 나갔으나 고려인들의 제2, 제3, 제4세대화에 따른 한글 독자의 감소, 우편네트워크 부재, 경제적인 변화 등으로 최대위기가 닥쳐 1993년 말 400부 발행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말 러시아판 중심으로 신문발행체제가 변화되면서 4,500부로 확대되었다. 2005년 2월 18일(제927호) 현재 전체 12면으로 주1회(매주 금요일) 발행되고 있다(발행부수 3,000부). 신문지면 구성은 고려인 소식을 전해주는 러시아어판 8면(이중 청년페이지가 4면), 한글판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5)</sup>



〈그림 3〉 「고려일보」와 「주간고려일보」, 「고려신문」의 표지와 내용기사

「고려일보」 외에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교민을 위한 일일정보지로서 「한인일보」와 「실크로드」가 발행되고 있다. 「한인일보」는 1999년 7월 14일에 창간되어 현재 유료(有料)지로서 전체 1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5회(토, 일 제외) 발행되고 있다. 「실크로드」는 2004년 11월 1일 창간된 무료지로서 전체 2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5회 발행되고 있다

## (2) 우즈베키스탄

15) 고려일보, Ibid. : 2005. 2. 18. 오후 2:00-2:50' 고려일보 주필 최영근, 전 주필 양원식 인터뷰. :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1997), p.226.

우즈베키스탄에서 본격적으로 민족신문의 창간이 논의된 것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였다. 고려인을 위한 신문은 첫 시도는 「통일」이었다. 「통일」은 소련의 붕괴 이후 ‘고려통일협력협회(범민련계열)’의 지원으로 창간된 일간신문이다. 이 신문은 초창기에 니자미 사범대학에서 조선말을 가르치던 북한출신 교수들에 의해서 발행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간지로 바뀌었으며 한글 위주의 신문기사도 일부면이 러시아어로 바뀌어 발행되었다.

이후 진정한 의미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을 위한 신문으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6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9월 20일에 「고려신문」이 타슈켄트에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러시아어로 발간되는데, 제정문제로 주간, 격주간, 월간 등 부침이 심하며, 신문의 면도 8면, 12면, 16면, 32면 등으로 빈번하게 축소와 확대를 거듭하다가 현재 12면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2005년 2월 18일 제 125호)(〈그림 3〉 참조). 이외에 교민을 위한 신문으로 「교민일보」가 발행되고 있다. 2001년 1월 8일 창간되었으며 발행빈도는 주5회(토, 일 제외), 초창기에는 지면수가 22면에서 현재 32면으로 확대되어 발행되고 있다.

## 다. 방송사와 정보자원

### (1) 카자흐스탄

#### (가) 한인 텔레비전방송<sup>16)</sup>

카자흐스탄에는 우리민족 텔레비전방송이 있다. 이 방송은 텔레비전이 가지는 고유의 대중성, 실험성, 현장성, 기록성, 정서적 감화라는 특성 때문에 중앙아시아 한인의 가장 대중적인 언론매체가 되고 있다. 한인 텔레비전방송은 1991년 2월 4일 첫 방송하였으며 2005년 2월 4일 개국 14주년을 맞이했다. 카자흐스탄 국립방송은 카자흐스탄 내 다수의 민족중 고려인과 독일인만 소수민족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13명(기자 1명 포함)으로 증원되었다.

프로그램 제작단 명칭은 2002년까지는 ‘고려사람’, 2003년부터는 ‘우리민족’으로 변경되었다. 방송시간은 초기에는 한달에 한번씩 고려인에 대한 방송을 하였다. 그 후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송시간이 증가되었으나 최근에는 주1회 화요일 10시에 30분간 방영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인사회의 주요사건과 한반도의 정치, 경제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 단편주제영화, 보고, 인터뷰, 담화, 음악회, 한인모임과 회의, 축제, 명절의식 등이다. 또한 아주 다양한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과 주제 음악회는 학자, 음악가, 배우 등의 창작적 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sup>17)</sup>

16) 한인방송은 ‘우리민족텔레비전방송’ 또는 ‘고려방송’이라고도 부른다.

17)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1997).

### (나) 한인 라디오방송

한인 라디오방송은 1984년 5월 19일 알마아타에서 개국하였으며(카자흐스탄 거주 소수민족 중 독일, 위구르, 터키, 아제르바이젠, 고려, 타타르인 등 여섯 민족만이 방송), 개국초기에는 주2회 30분간 방송하였다. 현재는 주1회 20분간(수요일 오후 4시 40분) 방송된다. 또한 한달에 한번 러시아어로 20분간(일요일 오후 5시 10분) 방송된다. 직원은 2명(PD와 카메라 리포터)이고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이 프로그램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의 주제와 내용은 공화국 고려인생활, 이주민의 역사, 문화, 사회, 연극, 학교와 가정, 학교생활, 한반도소식, 모국어 학습 등이다.

한인 라디오방송은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극동, 크즐오르다, 알마아타에 이르는 긴 여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제이주 후 고려인 라디오방송은 폐쇄되었었다. 이후 여러 한인단체에서 방송재개를 요청하여 처음에는 크즐오르다 한 곳으로만 전파를 송출하는 라디오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크즐오르다뿐만 아니라 알마아타, 잠불, 딸띠꾸르간, 침켄트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망의 확대를 요청하여 1984년 5월 19일 이후 카자흐스탄 전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라디오방송은 한국방송공사(KBS)와 1989년부터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 일본, 한국,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까지 방송을 전파하고 있다. 방송출연진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배우, 작가, 학자, 기업가, 학생, 한인 1세대 등이다. 특히 한인 1세대들은 강제 이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곤 한다.

###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 제1국영방송국에는 소수민족담당부서가 있어서 제4채널로 소수민족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한인방송의 프로그램 명칭은 '친선'이다. 개국은 1990년 3월이지만 실제방송은 5월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격주로 일요일 오후 4시부터 20분간 방송된다. '친선'은 초기부터 박 마르가리타가 작가와 섭외를 모두 맡고 있다. 방송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려인협회, 대사관, 한국교육원 등의 문화행사, 고려인 저명인사 활동내용, 한국의 소식, 이미 방송된 한국 TV방송국의 음악회, 드라마 등을 더빙하여 방영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 행사와 고려인 노래자랑, 사범대학 동방대 한국학과와 문화행사 등을 방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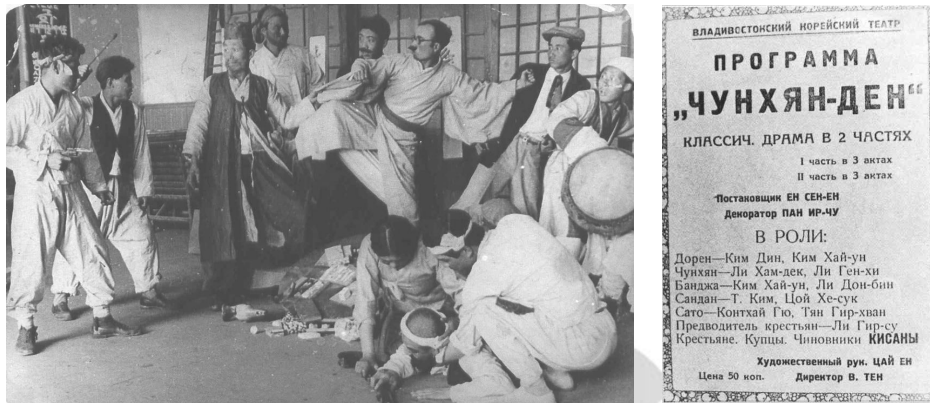
## 라. 문화예술기관과 정보자원

###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는 '고려극장'이 있다. '고려극장'의 전신은 '조선극장'이다. '조선극장'은 1932년 원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창립되었다. 극장 창립자들은 이길수, 태창춘, 김해운, 연성용, 김진, 이합덕,

최봉도, 김익수, 전후검, 최길춘, 이정희, 전 빅토르, 오철람 등이며, 조명희, 박일 등의 작가와 번역가들이 동참하였다. 이 당시에 공연된 우수한 작품들은 「춘향전」, 「장한몽(영원한 외침)」, 「야로바야의 사랑」 등이다.

1937년 ‘조선극장’은 강제이주 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중앙아시아 전역 순회공연



〈그림 4〉 조선극장(고려극장)의 연극 모습과 최초의 포스터

활동을 하였다. 초기에는 자립적으로 ‘음악연극조선극장’을 조직하여 운영했다. 1939년에는 태장춘 작 「행복한 사람들」과 꼬르네이추크 각본 「분합대의 죽음」이 공연되었다. 1941년 7월 7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방위구상」 등 전쟁에 관한 노래와 시로 구성된 음악프로그램이 군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연되었다. 1942년부터 1959년까지 카자흐스탄 우수투베로 옮겨졌는데, 당시 명칭은 ‘팔찌꾸르간 주립극장’이다. 공연작품은 태장춘의 「홍범도(1942)」, 까타예브의 「론 손수건(1943)」, 시모노브의 「낮과 밤(1944)」, 「그렇게 될 거야(1945)」, 채영의 「즐거운 생활(1949)」, 오스트롭스키의 「뇌우(1950)」, 태장춘의 「3·8선 남쪽에서(1950)」, 연성용의 「불타는 조선(1952)」, 고골리의 「검찰관(1952)」, 셰익스피어의 「오텔로(1953)」가 공연되었다.

1959년에 다시 크즐오르다로 옮겨졌는데, 이때 명칭은 ‘크즐오르다 주립 음악연극조선극장’이다. 1962년 3월 22일 ‘크즐오르다 주립 음악연극조선극장’은 ‘조선음악연극극장’으로 개칭하였다. 1962년 12월 7일 고려인 극장의 예술발전에 대한 공로로 다수의 극장 배우와 종사자들이 명예 칭호와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포상을 수여받았다. 1968년에 다시 알마아타(1991년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이 독립된 이후, 카자흐어 표기인 알마티로 바뀜)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칭은 ‘카자흐공화국 국립조선음악연극극장’으로 개명되었으며, 1969년에 ‘음악회극극장’이 되었다. 1982년에는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자발적 합병 250주년 기념 및 소련국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고 조선극장 창립 50주년을

18)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1997), p.200.

기념하여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공연하였다. 이 때 무대에 올린 공연작품은 「춘향전」, 「산 부처」, 「토끼의 모험」, 「3·8선 남쪽에서」이며, 「꼬블란디」의 극과 아리랑 가무단 공연이 있었다.

1992년 9월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으며 1996년 10월에는 카자흐스탄 문화부의 결정에 따라 극장 전체의 임직원 개편이 있었다. 1997년에 그 명칭이 ‘고려극장’으로 변경되었다.<sup>19)</sup> 이 극장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져 공연되어 왔다. 특히 관심을 끈 연극공연으로 1997년 ‘조선극장’에서 기획한 「기억」등이 있다. 「기억」은 송라브렌띠(현재 카자흐스탄 기록영화제작자겸 영화감독, 연출가, 희곡작가, 소설가)의 희곡 「기억」을 연출한 것인데, 고려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현재 고려극장은 5백만명 이상의 관객을 유치했으며, 약 250여편의 연극과 음악회를 공연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극작가들에 의해서 약 80여편의 희곡이 씌여졌으며, 약 70여편의 러시아, 소련, 외국작품들이 번역되었다.<sup>20)</sup> 또한 고려인과 관련된 영화제작은 카자흐스탄 영화제작소인 카작필름과 개인 영화사인 ‘송시네마(Song Cinema)’에서 하고 있다. 주로 기록문헌을 토대로 한 기록영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발표하고 있다.<sup>21)</sup>

##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는 카자흐스탄처럼 고려인 전용극장은 없으며 영화제작소인 ‘우즈베크필름’에서 고려인에 관한 다큐멘터리 필름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성공한 ‘볼호즈 북극성’, ‘볼호즈 폴리타젤’ 등 농장과 그 리더들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고려인들의 삶을 주제로 하여 본격적으로 영상물이 제작된 것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이다. 또한 ‘우즈베크텔레필름’ 산하의 영상보관소에는 주로 TV방송용 영상물이 제작되어 보관되어 있다.<sup>22)</sup>

오늘날 개인들의 비디오 촬영으로 고려인들의 삶의 모습들 이모저모가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타슈켄트에서 활동하는 ‘샘물바이얼린단(1992)’과 ‘청춘가무단(1984)’에서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고려인의 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 3. 정보자원 관리기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서관과 문서관은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유통시키고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현주소와 정보자원은 다음과 같다.

19) 김필영, “송라브렌띠의 희곡 ‘기억’과 카자흐스탄 고려 사람들의 강제이주 체험,” 비교한국학, 제 4호 (1998), p.107.

20) G. V. Kan, V. I. An, and D. V. Men, The Koreans of Kazakhstan : An Illustrated History(The Association of the Koreans of Kazakhstan, 1997), pp.180-190.

21) 송라브렌띠(영화감독) 인터뷰. 2005년 2월 19일 오전 10부터 12시까지 송감독 집에서 인터뷰 결과.

22) 한발레리, 최소영,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한국학 자료현황: 문헌자료 및 영상자료,” 역사문화연구, 제20집 (2004), pp.7-8.

## 가. 도서관과 정보자원

### (1) 카자흐스탄

(가)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the Republic Kazakhsatan)의 한국관련 정보자원<sup>23)</sup>.



〈그림 5〉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정문과 서고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은 1910년 12월 31일 Verny 시 Duma에서 도서열람실로 설립되었으며, 1931년 소비에트연방 카자흐주 공공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독립되면서 1991년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어 문화보존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소장 장서수는 550만권이며 50여개의 언어로 씌여진 다수의 희귀도서를 소장하고 있다(슬로베니아와 한국과 관련된 희귀도서 2천여권 소장). 또한 14개의 열람실과 1500개의 열람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이용자수는 평균 2,500명 정도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2005년 2월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http://www.nlrk.kz>). 현재 전산화 작업을 진행중인데, 구축된 DB는 약 40종 이상의 잡지와 신문이다(내용분석 포함). 논문실, 전자저널을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실, 별도의 석유가스정보자원실(미국위주)과 중국문화센터(중국어, 잡지, 신문, 서적, 유물전시관)가 있다. 예술실에는 미술과 음악관련 자료(5000개 이상의 레코드, 디지털 CD)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 분류체계는 BBK와 DDC를 병행하고 있다.<sup>24)</sup> 또한 국립도서관인 뿌쉬킨도서관에는 한국의 고문서 및 한국관련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 도서들은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37년 강제이주 이전과 이후 수집된 고문서, 둘째 1937년 강제이주 이후 크즐오르다와 까잘린스크의 한인학교와 한인사범대학의 폐쇄령과 모든 한인관련 서적판매 금지령, 그리고 1939년 소각령에 의해 유실도중 건져낸 일부도서와 문서, 셋째, 북한에서 발행된 고문서와 도서이다.

23) 뿌시킨도서관으로도 부른다.

24) 2005년 2월 18일. 현지방문과 도서관 홍보비서 안내와 인터뷰.

현재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국과 관련된 약 2만 5천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도서관 홍보비서에 의하면, 첫 번째의 1937년 강제이주 이전과 이후에 수집하여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약 300권이다.<sup>25)</sup> 실제로 연구자가 직접 고문서실을 방문하여 자료목록카드를 일일이 세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0권이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150권이 더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어볼 때 약 300권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발행된 고문서들이 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Munhon bigo)』 50권, 『황화집(皇華集)』, 『조선역사(朝鮮歷史)』 8권, 『조선왕조와 조선무인(武臣)에 관한 역사』의 기타 조선시대의 족보 등이 있다.



〈그림 6〉 국립 뿌쉬킨도서관 고문서실과 한국 고문서

한인학교 폐쇄(1938년 9월 1일 소련정부의 지시에 따라 까잘린스크의 한인학교와 크즐오르다의 한인사범대학 폐쇄), 서적판매금지령(1939년 12월 한인문학과 관련한 서적판매소와 도서관에서 한국어 서적의 사용 중지명령), 소각령(출판관련 비밀유지담당 국가위원회의 엄격한 감독하에 극동에서 고려인들이 가져온 수만권의 서적소각)에 의해 엄청난 양의 서적유실이 있었다.<sup>26)</sup> 이때 분실된 자료는 약 134개 분야의 교과서적 12만권 이상과 1만 7천권 이상의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서 등이다. 이러한 제2의 분서갱유사건에도 불구하고 자료유실 상태에서 보존된 도서가 두 번째 유형의 도서이다. 이 도서는 지하서고에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서 정확히 몇 권의 도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 도서들은 당국의 소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식있는 도서관 사서들의 노력으로 일부는 불에 타는 도중에 끄집어내어 비밀리에 보관되어온 자료들이다. 추후 이들 자료에 대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들어보면, 작가 한진이

25) 2005년 2월 18일. 현지방문과 도서관 홍보비서와의 인터뷰.

26) Корей 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1997), p.?



발표한 단편소설 「공포」(작품집 『오늘의 빛(1990)』에 수록)에서 다음의 구절을 볼 수 있다

“때가 오면 다시 이 도서관(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특별장서실)에 찾아와 이 책들을 읽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싶다.”(「공포」, p.40)

여기에서 ‘이 책들’이란 소설 속에서 유테게 러시아 교장이 조선어 책은 불온서적이므로 불태우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소설속의 리선생이라는 사람이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 800권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으로 보냈다는 것이다.<sup>27)</sup> 한진이 소설 속에 우연히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화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목해볼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종류의 도서는 북한에서 발행된 것으로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이 있다.

#### (나) 국립과학도서관

1932년에 설립된 국립과학도서관은 초창기에 장서 2500권으로 시작해서 현재 50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조직은 기술과 재정 외에 1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본부의 주 도서관에 5개 열람실과 알마아타시에 16개 분관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학문분야별로 도서관부서가 있다.

자연과학기술관은 분야별 목록집(동물, 식물)이 있고, 열람실에 미국서적은 따로 분류되어 있으며 분야별 목록집(동물, 식물)이 있고, 우데카 분류(DDC와 유사)를 사용한다. 단 미국도서는 따로 분류되어 있다. 도서대출은 주문을 받아서한다. 회귀도서실에는 1만 여권이 소장되어 있다.<sup>28)</sup> 전자자료관에서 자료를 디지털화(CD)하고 있다.<sup>29)</sup> 사회주의 혁명 이전 아랍어 자료는 디지털화가 완성되었으며, 회귀본은 러시아어로의 번역과 더불어 디지털화하고 있다. 목록전산화작업을 통해 현재 22만 2천권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국립과학도서관은 외국학술지는 73개 국가의 640개 도서관과 상호교류하고 있으며(100여개의 언어로 된 학술지들을 포함), 한국과의 교류도 학문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도서관에는 약 1만 여권에 해당하는 한국학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 거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제공한 자료들이다(공화국 건국이후 한국과 수교이전까지). 그러나 이 자료들은 모두 지하서고에 방치되어 있어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며 목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도서관에는 약 300권의 조선시대의 고서와 기록문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발견한 서울 광화문의 옛종의 명칭과 유래를 다룬 『光化門古鐘銘』이 있다(그림 7).<sup>30)</sup>

27) 이명재, 오창은, “구소련권 고려인문학의 현황과 특수성,”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구소련권 고려인문학(한국문화사, 2004), p.28.에서도 언급.

28) 2,200권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도서이다

29)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작가인 아바이 작품, 두루마리와 양피지(길이26M), 소가죽(길이86M) 등으로 만들어진 도서

30) 2005년 2월 22일, 현지 방문과 도서관 홍보담당자와의 인터뷰.



〈그림 7〉 『光化門古鐘銘』의 표지

(다)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와 도서관

1995년에 동방학부내의 한국학 관련분야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9년 10월 한국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학과장인 김게르만 교수 외에 10여명의 한국학 관련 교수들이 있다. 학과 부설 도서관에는 한국의 다수의 관련 재단, 단체, 기관들이 제공한 서적과 잡지들이 있다. 소장된 자료는 교과서와 관련된 약 50종 1000여권의 한글서적과 사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와 관련된 전문서적 약 600권(한글, 영어, 러시아어), 한국관련 전문잡지 약 600여권(Korean Observer,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등), 한국 소설, 시, 민화 등 150여권, 다수의 19세기와 20세기 소비에트연방시대의 한국과 고려인에 관련된 연구물(논문, 서적, 문서 등), 고려인 문학 작가들(조명희, 한진, 양봉식, 김 아나톨리, 손 라브렌쥬, 강 알렉산드르, 이진 등)의 작품 70여권(한글과 러시아어),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 200여권(레닌, 김일성, 조선노동당 문서), 기타 100여권(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고려인에 관련된 연구논문 등)이 소장되어 열람되고 있다.<sup>31)</sup>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도서관에는 상당량의 한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주로 북한에서 온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역시 정리되지 못한 자료들이 서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한국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다. 연구자가 현지 조사시에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현장접근은 불가능하였고, 이 도서관을 이용한 고려인들이나 한국 유학생들의 이야기에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최근에는 니자미 사범대학, 동방대학, 세계언어 대학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곳에서는 한국학자료실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제공한 자료들이다.

31) 2005년 2월 22일, 학과 방문 및 김게르만 교수와의 인터뷰.

## 나. 기록보존소와 고려인

강제이주 후 고려인 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협회, 고려일보, 고려극장, 한인텔레비전방송, 한인라디오방송),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신문, 고려인협회, 우즈베크필름과 우즈베크텔레필름, 제1국영방송국내 제4채널 소수민족방송 등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고려인 관련 많은 자료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필자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록문헌을 조사하면서 몇몇 저명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고려인 관련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록보존소와 소장되어 있는 문헌에 관한 것이다.

### (1)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초기 이주에서부터 정착관련 문서들과, 고려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록문서들이 카자흐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알마타기록보존소, 잠불기록보존소, 카라간기록보존소 등의 지역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사진필름기록보존소에는 많은 텍스트, 보고서, 영상, 사진 등의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기록보존소는 1921년에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으로는 1733년에 생산된 기록문서(기록물)로부터 카자흐스탄의 최초의 한인에 관련된 기록문서, 강제이주 명령서, 강제이주와 관련된 기록문서, 고려인 생활사와 관련된 기록문서 등 약 2000여개가 넘는 문서와 백만 이상의 파일들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외에 각 지역의 기록보존소에서도 고려인(한인)에 관련된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알마타, 잠불, 카라칸, 우슈토베, 크즐오르다 등이다. 또한 국립영상, 사진 및 영상 기록보존소에는 전체 영상자료가 27,000점이 소장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150,000점 정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중 고려인과 관련된 영상자료는 80여점이다.<sup>32)</sup>

###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에 관련된 주요한 기록문헌자료는 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립중앙기록보존소, 내무부 기록보존소, 대통령직속기록보존소, 국정원 기록보존소<sup>33)</sup> 등이 있다. 여기에서 기록보존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개자료와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공개자료로 구성된다. 전자는 국립중앙기록보존소가 해당되며 후자는 내무부 기록보존소, 대통령직속 기록보존소, 국정원 기록보존소이다. 특히 주요기록문서는 국정원기록보존소에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구 소련시절에 기밀로 취급되었던 문서들이 주로 보관되어 있다. 이외에도 외무부 산하 기

32) 카자흐스탄공화국 영화, 사진, 필름 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кино-, фот-, фондокумен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김상철 “카자스탄 고려인 관련 영상물에서 나타난 고려인 주요인사 및 민족문화 관련 기관의 활동,”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2004. 재외동포재단, 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pp.55-87.

33) 구 소련시절에 기밀로 취급되었던 문서들이 주로 보관되어 있다. 주요기록문서는 고려인에 관한 것이다.

록보존소, 도서관산하 기록보존소, 과학기술기록보존소, 이외에 기타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있다

첫째, 국립중앙기록보존소이다. 보존된 기록문헌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망라되어 있다. 각 12개 지역마다 각각 1개소씩 분관이 있으며, 카라칼팍 자지공화국과 타슈켄트 도시 기록보존소가 있다. 고려인과 관련된 기록문서를 찾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인터뷰와 문헌조사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김블라지미르, 김포트르, 하흐만쿨로바 아돌랏, 한발레리 등이 본격적으로 조사하였거나 지금도 조사 중임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들 중 김블라지미르 닥을 직접방문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거나 인터뷰했으며,<sup>34)</sup> 한 발레리에 대해서는 이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최소영(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을 타슈켄트에서 직접인터뷰<sup>35)</sup>를 하였다. 이외에 김포트르와 한발레리에 대해서는 주변인사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김블라지미르는 변호사이며 현재 아쿠르간 고려문화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가 펴낸 <50년 후의 진실(Правда-полвека спустя) : 30-40년대 러시아 극동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강제이주(Deporation of the Korean Population from the Far-Eastern Territory to Uzbekistan in the 30s-40s)><sup>36)</sup>은 기록보존소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또한 내무부 기록보존소를 통해서 고려인에 관련된 기록문헌들을 발굴하였다. 이외에 그가 펴낸 책자는 <크레믈린에서 회견: 기대 ДОРОГОЙСВЕТЛЫХ НАДЕЖД: ОЖИДАНИЕ)><sup>37)</sup> <ТУМАНГАН-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sup>38)</sup> 등이 있다. (그림 8)

김포트르는 역사학자이자 문서연구가,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장(1991-2000)을 역임하였다. 그는 우즈베크공산당 역사연구소의 기록보존소에서 강제 이주와 관련된 문서수집과 관련자료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표 4)는 그가 발굴하고 수집한 강제 이주사와 고려인의 삶에 관련된 문헌들을 나타내고 있다.<sup>39)</sup> 라흐만쿨로바 아돌랏과 한발레리는 고려인 강제이주와 관련한 자료를 국립중앙기록보존소에서 많이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표 5)는 이들이 발굴한 기록문서들을 소개한 것이다.<sup>40)</sup>

둘째, 타슈켄트지역 기록보존소이다. 역사학자인 한 발레리에 의해 처음으로 500여장의 고려인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었다. 그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최소영의 인터뷰와 문헌<sup>41)</sup>에 의하면 타슈켄트지역 기록보존에는 타슈켄트주(州)에는 여러 고려인 콜호즈의 형성과정과 기반시설, 콜호즈 집행위원회의 활동 및 집행위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등 유명 고려인 콜호즈에 대한 다양

34) 2005년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쿠우르간에 거주하는 김블라지미르 닥

35) 2005년 2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36) В. Д. КИМ, Правда - полвека спустя, ТАШКЕНТ : ЎЗБЕКИСТОН(1999).

37) В. Д. КИМ, ДОРОГОЙСВЕТЛЫХ НАДЕЖД : ОЖИДАНИЕ ТАШКЕНТ(2001).

38) В. Д. КИМ, ТУМАНГАН-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 ТАШКЕНТ : ЎЗБЕКИСТОН(1994).

39) 한발레리, 최소영, Ibid., p.4.

40) Ibid.

41) Ibid., p.5.



〈그림 8〉 김블라지미르와 그가 펴낸 자료들, 고려인  
이주생활사 박물관 전경

〈표 4〉 김포트르가 발굴하고 수집한 강제이주와 고려인 삶에 대한 기록문서

연번	기록보존소 문헌	내용
1	Ф.100, оп1 의 д2 와 д4	강제이주자들의 편지와 콜호즈의 설비 등 환경조건에 대한자료
2	д1	고려인 거주권 통지서의 사본과 1938년 6월 고려인들의 상황진개, 고려인들의 의료조사에 대한 자료
3	Ф.58(оп1.д15; оп13, д1557; оп4, д812), Ф.652(оп1.д50), Ф.996( оп4, д4),	강제이주사(책으로 출판)
4	Ф.1619(оп10, д588),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려인 콜호즈의 작업과 고려인들의 공헌에 대한 문서

〈표 5〉 라흐만쿨로바 아돌랏과 한발레리가 발굴한 기록문서

발굴자	현재직업	기록보존소 문헌	내용
라흐만쿨로바 아돌랏	테르메즈국립대학	Ф.837(оп32, д589; д590; д592; д593; д1223; д1224; д1225; д1226; д1228; д1230), Ф.314(оп1, д2), Ф.90( оп8, д4469; д4471; д4472; д4466; д5138)	『1930년대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 역사에 대한 국립중앙 기록보존소 자료들(고려인을 대상으로)』
한발레리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역사연구소 부학장	Ф.314, оп7, д1	연해주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될 당시 각 기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이동 당시 사망여부(자세히 기록)

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표 6).<sup>42)</sup> 셋째,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sup>43)</sup> 기록보존소이다.

42) 필자도 또한 현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3) 한때는 고려인 인구가 2만명에서 현재 약 9천명이 거주

이 기록보존소 자료는 주마세프(Джумашев), 황류드밀라 등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44)</sup> (표 7)

〈표 6〉 타쉬켄트지역 기록보존소의 고려인 기록문서

발굴자	기록보존소 문헌	내용
한발레리	Ф.530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연구소 및 학교
	Ф.530(оп1, д69a)	중(中) 치르직 지역 고려인 학교의 1941-42년도 학기자료
한발레리	Ф.652	타쉬켄트주 노동자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자료 *1930년대말과 1940년대 초의 고려인 콜호즈 '스베르들롭(колхоз им Свердлова)'의 형성과 이동과정에대한 문서, 1940년대 상·중·하 치르직 지역의 지역 집행위원회 의 회의록, 1940년대 콜호즈 보건·교육·예술 활동의 현황
한발레리	Ф.658	타쉬켄트주 집행위원회 강제 이주지역 분과와 관련된 자료 *1940년대 고려인 콜호즈 아방가르드(Авангард), 압두라흐마노프(колхоз им.Абдура хманова), 키로프(Киров), 여명(рассвет), 레닌의 길(путь Ленина), 미코얀(колхоз и м.Микояна), 원동(дальний восток), 별(звезда), 카가노비치(колхоз им.Кагановича), 제3차 인터네셔널(III-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리센코(Льсенко), 승리(победа), 말렌코프 (колхоз им.Маленкова) 등이 형성되는 과정과 콜호즈 경제, 집행위원회 회의록 등
한발레리	Ф.680	소련 정부 산하 타쉬켄트주 콜호즈 담당 소비에트 의장 *1950년대의 콜호즈 '스베르들롭'과 '북극성' 등의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서 등
한발레리	Ф.947	사회보장 관련 타쉬켄트 지역분과 *1960년대 고려인들의 연금에 대한 자료들이 개 개인별로 상세 수집기록

〈표 7〉 카라칼팍스탄지역 기록보존소의 고려인 기록문서

발굴자	기록보존소 문헌	내용
주마세프 (Джумашев)	Ф.322 оп1의 , д263; д381; д384; д475	연해주지역 고려인들의 카라칼팍스탄으로의 강제이주 과정
황류드밀라	Ф.322	1937-38 년도에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 인민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

#### 다. 고려인협회와 정보자원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AKK: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The Association of the Koreans of Kazakstan)는 1990년에 창립되었다. 2004년에 AKK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15주  
년 기념 책자 <아리랑(The Long Road to Ariran)>을 발행하였다. 이책은 카자흐어와 영어로 씌  
여져 있으며, AKK발전단계, 역사, 강제이주, 전통, AKK지부, 고려극장, 교육, 과학, 언론계, 비즈  
네스, 청년들, 고려인회관, 고려인화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AKK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하  
여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비디오제작은 러시아어로 만들어졌으며 주제명은 『현재를 걷고 있는 카  
자흐스탄 고려인』이다.

44) А. М. Джумашев, К истории депорт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ара-калпакстан(1937-1938 гг.). - <<Извеш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Вып. 9, Алматы, 2002.

고려인협회 부설도서관은 2004년 11월에 개관하였다. 여기에는 AKK와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관련된 도서, 잡지, 신문들이 소장되어 있다. 추후 모든 분야의 도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조국애, 민족애, 문화홍보와 교육을 중점을 두고 도서자료를 구비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http://www.koryosaram@freenet.kz>)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은 내용과 구성면에서 매우 부족한 편이다. 고려인 유공자협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상근직원은 전 우스토베지 지역의 부군수를 역임한 인발렌티나이다. 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는 1991년에 설립되었다.

#### 라. 한국교육원과 정보자원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은 알마아타에 있으며 위치는 알마아타, 아바야 159 A번지다. 교육원 프로그램은 한국어강좌와 기타강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강좌는 초급과정 (A, B, C),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수업기간은 15주이다. 기타강좌는 태권도(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장구와 민요, 단소, 토요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원내에 도서관이 있으며 약 2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은 타슈켄트에 있다. 1992년 5월 10일 설립이 확정되어 1992년 5월 28일 타슈켄트시 페틀레타르스키야 16무제이 이스쿠스트에 개원하였다. 1998년 5월 25일 현재의 위치(3, Fetisov str. Mirabad district, Tashkent)에 이전 개원하였다. 한국어 연수반과 한글교사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원내에 도서관이 있으며 2004년 현재 12,000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종류별 장서는 일반교양서적 4,223권, 어린이용 동화 4,816권, 성인용소설 2,451권, 백과사전 등 사전류 510권이다. 사서교사 한명이 전담하여 도서대출 및 한국어 교수학습 교재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열람실에 간이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장서분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족한 멀티미디어실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더 많은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 장서, 인적자원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마. 정보자원관리기관 디렉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보자원 생산과 서비스에 관련된 기관자원 디렉토리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기에서는 생산범주, 기관명, 주소, 전화, 홈페이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보자원 생산과 서비스에 관련된 기관자원 디렉토리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에서와 같이 생산범주, 기관명, 주소, 전화,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재 카자흐스탄 고려인 한글 정보자원 생산과 서비스기관 디렉토리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	홈페이지 (전자우편)
	생산법주	기관명			
1	출판	자수시출판사	г. Алма-Ата пр Абая	(3272)43-17-55 FAX.42-27-43	jazushy@hotmail.net
2	신문	고려일보	2, Gogol str., Almaty, 050002	(3272) 93-96-90	kore-ilbo@nursat.kz
3	신문	한인일보	#4, 66, Str. satbaeva, Almaty, Kazakhstan	(3272) 46-48-23 FAX : 70-11-81	almatykim@hanmail.net
4	신문	실크로드	Almaty, Kazakhstan	(3272) 92-39-05 FAX : 92-76-02	silkroad-kz@hanmail.net
5	방송	고려말라디오 방송	175, Zheltoksan st. Almaty, 480013	8-300-321-29-64	sungik@mail.ru
6	TV 방송	우리민족 텔레비전방송	175, Zheltoksan st. Almaty, 480013	8-72-13-45	
7	단체	고려인협회	2, Gogol str., Almaty, 050002		(http://www.koryosaram@freenet.kz
8	도서관	국립도서관	480013, Алматы пр Абая, 14.	(3272) 67-28-33	nlrk@nursat.kz
9	도서관	국립과학 도서관	г. Алматы, Шевченко, 28	(3272) 93-00-37 Fax. 93-02-60	cnb@academset.kz
10	교육	한국교육원	알마티, 아바이 159 A번지(159-A Abai ave, Almaty)	(3272) 46-87-19, 46-89-31	sangdo49@hanmail.net

〈표 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한글 정보자원 생산과 서비스기관 디렉토리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	홈페이지
	생산법주	기관명			
1	신문	고려신문	52, Schevchenkostr., Tashkent city, 700015	(998-71) 152-10 93, 152-27-79	koresinmun@mail.ru
2	신문	교민일보	3 Fetisoba St., Mirabad district, Tashkent-700005	(998-71)181-74-60.Fax. 199-50-99	kyomin@anet.uz
2	방송	제1 방송국 제4채널·친선	8 Bld., 1 Blind alley, Nukus str., Flat 3, Tashkent-700011	(998-712) 54-74-68	chinson@bcc.com.uz.
3	기관	고려인협회	Tashkent-70015 Shevchent-52	(9987)152-74-59 (9987)152-27-79	uzhsk@distlink.net
4	도서관	과학아카데미		162-38-25 162-52-74	
5	도서관	한국교육원	3 Fetisoba St., Mirabad district, Tashkent-700005	(998-71)191-81-82(3) Fax.120-64-34	jjangwec@hanmail.net

#### IV. 결론 및 제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구소련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려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추어 체제에 위협을 가할 만큼



의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37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는 고려인들에게 많은 좌절과 희망을 안아왔지만 특유의 민족정신과 협력으로 현지인들과 융화를 통해 새로운 터전을 고향삼아 타 민족들보다도 우수한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몰락과 민족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새로운 공화국 탄생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혼돈과 두려움으로 많은 정신적 공황을 가져왔다. 또한 독립 이후 나타난 언어의 문제는 수많은 고려인들에게 생활의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독립이전의 러시아어에서 독립이후 고유 언어인 카자흐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불편이 따르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다음과 같은 한글정보자원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정보자원은 고려인에 의해 또는 거주국가의 정보관리기관에 의해 유통시키고 서비스되고 있다.

첫째, 기록문헌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정보자원은 자수식와 산삼을 비롯한 다수의 출판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텍스트와 기사 위주의 생산이다. 둘째, 고려일보, 고려신문, 실크로드, 한일일보, 교민일보 등의 신문사의 정보자원 생산은 고려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커다란 다리역할을 하였다. 셋째, 음향과 영상매체의 기록정보는 한인라디오방송, 한인TV방송, 우즈베키스탄 제1국영방송 채널 4(고려인 프로그램 '친선') 등 방송국에서 생산되었다. 넷째, 고려인의 문화예술정보자원은 고려인극장, 송시네마, 우즈베크필름, 우즈베크텔레필름, 샘발바이얼린단, 청춘가무단 등에서 이루어졌다. 다섯째, 고려인의 역사를 기록문헌정보는 기록보존센터인 우즈베키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국정원기록보존소, 타쉬켄트기록보존소,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기록보존소, 카자흐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알마타·잠볼·카라간지역기록보존소, 사진필름기록보존소 등에서 보존되어 있다. 이들 기록정보자원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에서 현재까지 그들의 생활터전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생성되는 고려인 정보자원 생산은 오늘날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경제적인 어려움, 언어의 딜레마, 미래의 전망, 무엇보다도 고려인의 정체성문제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격려와 지원, 경제적으로 현지의 생산과 투자환경의 조성, 무엇보다도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보자원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교훈과 교육의 필요성을 부여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КСІ